



4면

도교육청-장수군, 교육협력 맞손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윤 2월 8일) 제3232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진행된 전북 아·태 마스터스 D-45 성공 개최 다짐대회 및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등 참석자들이 성공 개최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 아·태 마스터스 D-45... 성공 개최 다짐

“문화·관광 융합 세계 대회로”

조직위 총회 위원 등 한자리에 모여 준비 상황 점검
참가자 1만명 초과... 남은 기간 차질없는 준비 만전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대회를 45여일 앞두고 조직위 총회 위원, 고문, 자문·전문위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회 성공 개최 다짐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직위는 지난 2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오는 5월 12일 개최되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D-45 성공 개최 다짐대회 및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직위 부위원장인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해 고문인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성공 다짐 대회는 대회 공식 주제가, 홍보 영상과 함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대회 준비상황 보고, 성공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그간 조직위는 전북체육회와 함께 참가자 모집에서부터 경기장 시설점검, 수송 숙박, 음식점 편의 제공, 자원봉사자 모집 해외 출입국 간소화 추진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해 빈틈없이 준비해 왔으며, 추후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용품 구입 및 임대, 경기운영 인력 확보 종합안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 스포츠연맹과 종목별 체육단체 등

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시도 쿼터제를 통해 지난 3월 1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당초 목표인 1만명을 초과한 65개국 11,325명이 참가를 신청해, 코로나 이전에 개최됐던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중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화합과 희망의 대회, 지역경제에 효과 노릇을 하는 경제대회로써,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세계 대회로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조직위 이강오 사무총장은 “D-45 성공개최 다짐 대회를 기점으로 비상 근무체제로 돌입해 준비상황 최종 점검과 함께 차질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을 주제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25개 종목을 도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며, 대회 기간동안 선수 운영인력, 관람객 등 약 1만명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익산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내달 5일부터 12일간 개최

익산시는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12일 동안 왕궁면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주얼팰리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주얼팰리스 55개 업체가 비상 근무체제로 돌입해 준비상황 최종 점검과 함께 차질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는 특별함인행사 외에도 주얼리 우수작품 특별전시, 개인소유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석 리세팅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 최대 현안 ‘대광법 개정안’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서 재논의

김관영 지사, “광역교통시설 확충 위해 필요... 통과 노력”

전북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당 김운덕 의원(전주갑),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이 각각 대표적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사진)를 비롯해 한병도·정운천·김성주·김수홍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으나,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내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전북도, 일자리 창출 등 총 4개 분야 재정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 등 5곳 신규 지정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 등을 선정하고, 총 32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사가 신규 지정됐으며, 재정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일자리창출지원 23개사 17억 4,000만원, △사업개발비지원 31개사 9억 8,000만원, △인프라지원 1개사 2,000만원, △지역특화사업 8건 4억 6,000만원 등 총 32억원 규모이다.

먼저, 일자리창출 사업은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인력 120명에 월 최저임금(201만원/인당)의 일부(40~60%)를 1년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매출상승을 위한 브랜드·신제품 개발, 누리집 구축 등에 기업당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지원사업은 기자재·설비 구축비용 일부(60%)를 지원한다.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은 도 및 7개 시군(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진안·부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사회

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진입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3개사, 지역사회공헌형 1개사, 혼합형 1개사이다.

향후, 전북도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기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와 분기별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을 위해 경영 컨설팅과 재정지원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을 위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번 재정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